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4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부자와 라자로의 예화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6번 ‘우리는 주의 사랑을’ 1,2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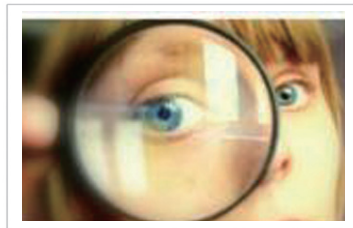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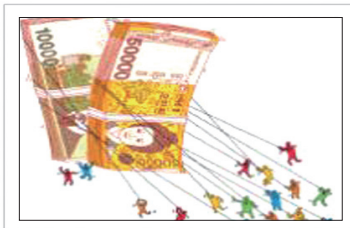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저희의 시야를 넓혀 주위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참된 부자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부자라는 이유로 외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위에 관심을 가져서 가슴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눕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라자로는 그리스어로 ‘도움 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이름으로 쓰면 엘사자르 또는 엘리제르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느님이 도우신다.’(El-azar)는 뜻이 됩니다. 라자로를 도움을 받을 길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죽고 나서 그 상황이 반전됩니다. 한 마디로 반전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드라마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도움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사시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마음은 현세적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인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1,2절을 부릅니다.



궁
금
했
어
요세례의 은총으로 신앙생활은
충분한데, 굳이 견진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값을 치루고 돌아가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승격되었고 상속자의 인호를 받는 세례의 은총을 지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튼튼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견진성사는 ‘굳건히 하다. 강하게 하다. 쓸모 있게 만들다. 일어서게 하다. 견딜 힘을 주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직 어린 세례인이 성장했음을 선포하는 성인식이 견진이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견진성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믿음의 어른이 되어 이제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진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기쁨과 평화로 한 걸음 도약하도록 합니다. 솜씨 좋은 성령께서 하느님과 깊이 연결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느님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도록, 하느님의 뜻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귀한 성사인 만큼 놓칠 수 없습니다.

한솔밥 공동체

- 양곡본당 1구역 1반 -

서 명 숙 에스텔 (양곡본당 지역부장)

† 찬미예수님

저희 양곡본당 소공동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총 3개 구역의 6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외 천사구역은 남성소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1구역 1반을 소개 합니다.

저희 1구역 1반은 총 25세대입니다만 이런저런 형편상 8~9분이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매님들 중심이지요. 저희 반의 자랑은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30분정도 미리 가서 그 가정을 위해 가정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느님의 힘을 나누어 받도록 기도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을 모시고 촛불을 켜고 모임을 시작하는데 복음나누기 7단계 순서로 진행합니다. 복음나누기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반원들 생활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서는 꼭 간단한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한솔밥에서 정이 넘치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와 이런저런 세상얘기들을 나눕니다. 수녀님도 거의 함께 참석하시는 편이고요.

올 1년 동안에 저희가 세운 목표는 주위의 냉담자를 모셔오고 이웃의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소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우면 식사나 차라도 한잔하자며 단1명이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특기사항으로 올해는 구역미사를 4.5.6.9.10.11월 중 6개 반에서 시행합니다. 그때는 온가족이 참석 가능하겠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는 마음, 기쁨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저희 1구역 1반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소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양곡본당 1구역 1반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